

아동 특질의 본질에 대한 한국 성인의 믿음*

최 유 정

송 현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이 아동 특질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1) 한국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동 특질에 대
해 지니는 믿음의 유형, (2) 아동 특질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개념적 정합성(coherence) 존재
유무, (3) 특질 유형에 따른 믿음의 차이, 그리고 (4) 특질의 긍정성에 따른 믿음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는 어머니 102명이, 연구 2에는 대학생 102명이 참여하였다. 연
구 결과, 어머니와 대학생간의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성인들은 아동의 특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진적 관점(incremental view)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관점에는 개념적 정합성이 존재했다. 또한 특질 중에서 ‘똑똑한’,
‘고집 센’은 다른 특질보다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특질 ‘공부
못 하는’은 더 변화될 여지가 많은 특질이라고 생각했다. 특질의 긍정, 부정성에 따라 성인의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특질에 대한 한국 성
인들의 믿음을 밝힌 최초의 연구 결과로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의 근원을 밝히는 향후 연구의
경험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특질, 본질, 사회 인지, 사람 지각

*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아동 발달 연구실의 연구원(윤정은, 김유진, 진경선, 김민영, 원정애, 이우열,
이윤하), 학부생 연구 조교, 연구에 협조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2008년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 연구비 지원으
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110)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2123-4887, E-mail: hsong@yonsei.ac.kr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특질(trait)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둔하게 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아둔할지 여부에 대한 추론을 암묵적으로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특질에 대한 이러한 추론은 타인 및 자아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Lockhart, Nakashima, Inagaki, & Keil, 2008),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자신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eyman & Gelman, 1999).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둔했고, 앞으로도 계속 아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도전할만한 기회를 주는데도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둔하게 되었고,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좋은 환경 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 성인들이 아동 특질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환경 및 부모의 양육 태도이며, 또한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어서 흥미로운 문화차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Berndt, Cheung, Lau, Hau, & Lew, 1993).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중국 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은 타 문화 집단 가정의 아동들보다 좀 더 자기-통제와 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부모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라난다(Huntsinger, Jose, & Larson, 1998). 이런 부모의 양육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아동 특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일 것

이다. 아동의 특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에게 노력을 통한 학업성취를 강조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의 아동 양육 방식의 본질을 검증하는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한국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 특질의 본질에 믿음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질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특질의 본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Gelman, 2003), 본 연구에서는 본질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어 온 근원적 안정성에 대한 믿음 양상을 보고자 한다. 특질의 근원성에 대한 믿음은 특질이 타고난 것인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믿음을 말하며, 특질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특질이 안정적이고 비가변적이라고 믿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특질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실체적 관점(entity view)과 증진적 관점(incremental view)으로 나눌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첫 번째, 실체적 관점은 특질이 안정적이고 고정된 불변하는 실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지능에 대해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지적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특질에 대해서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특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노력을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집중시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Lockhart et al., 2008). 그렇지만, 실체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수행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Henderson & Dweck, 1990), 무기력한 동기적 반응(helpless motivation response)을 보일 경향성이 높다(Cain & Dweck, 1995). 특히 성격 특질에 대한 실제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더 쉽게 포기하고, 무기력함에 더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자기 귀인(negative self-attributions)을 하는 경향이 있다(Dweck & Leggett, 1988; Erdley, Cain, Loomis, Dumas-Hines, & Dweck, 1997; Heyman & Dweck, 1998).

이러한 실제적 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본질적 관점(essentialism)이 있는데(Lockhart et al., 2008) 이것은 사람이나 집단의 특정 특질이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람이나 집단의 본질이라는 믿음이다. 본질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특질이 안정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둔 선천적인 것이라고 믿는다(Gelman et al., 2007).

두 번째는 증진적 관점으로 특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지능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 능력은 변화될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실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탄력적(resilient)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Cain & Dweck, 1995). 그렇지만, 증진적 관점을 가지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먼저 어떤 특질이든 변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주력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모든 분야에 힘과 에너지를 배분하므로 특정 분야의 빠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환경이나 교육, 노력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독특한 선

천적인 능력을 간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인들은 성격 특질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특질에 대해 연구한 이전 결과들을 살펴보면, 서양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본질적 관점 또는 실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높지만(Gelman, Heyman, & Legare, 2007; Haslam, Bastian, & Bissett, 2004; Lockhart, Chang, & Story, 2002; Lockhart et al., 2008),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Dweck, Hong, & Chiu, 1993). 일본 성인들은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 특질이라는 것은 더 유연하고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Dweck & Leggett, 1988; Markus & Kitayama, 1991). 또한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 귀인할 때, 한국 대학생들에서 미국 대학생에서보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Norenzayan, Choi, & Nisbett,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인들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의 성인들이 전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특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특질에 대한 증진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Norenzayan et al., 2002).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이 아동이라는 특정 연령층의 집단의 특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한국 어머니(연

구 1)들과 대학생(연구 2)들이 아동 특질이 변화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특질에 대해 어떤 관점(실체적 혹은 증진적 관점)을 가지는가? 둘째, 한국 성인들의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셋째, 특질 유형에 따라 특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 넷째, 특질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에 따라 특질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1: 한국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특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미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뛰어난 학업 성취 결과를 대부분 타고난 기질 때문이라고 귀인하지만, 일본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 결과를 노력의 결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eine, 2005; Holloway, 1988). 이것은 미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선천적인 특질이라고 본 반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후천적인 특질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대학생들도 미국 대학생에 비해서 더 부정적인 특질이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을 노력에 귀인하는 결과를 보였다(Lockhart et al., 2008). 또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특질(psychological traits)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Lockhart et al., 2008). 이것은 일본 대학생들이 개인의 노력, 외부의 좋은 환경과 교육이 아이들의 특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노력이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Heine, 2005; Holloway, 1988)과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의 성인들도 아이들의 특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 문제 2: 한국 성인들의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사람들이 특질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믿음에는 다양한 개념적 차원들이 존재한다. ‘뇌에 차이가 존재하는가(brain)’, ‘특질의 차이가 피속에도 존재하는가(blood)’와 같은 생물학적인 것에 바탕을 둔 차원들(Gelman, 2003; Gottfried, Gelman, & Schultz, 1999)이 있는가 하면, 불변성(inalterability)과 같은 차원(Keil, 1989; Rothbart & Taylor, 1992)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믿음 차원들 간의 개념적 정합성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특질이 뇌의 차이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좀 더 불변적인 특질일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Gelman et al., 2007).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특질의 본질적 관점에 대한 믿음은 정합성을 가진 개념의 형태로 존재하며(Haslam et al., 2004; Haslam, Rothschild, & Ernst, 2000), 만 9세가 되면 특질에 대한 믿음의 다양한 차원 간에 정합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elm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이 아동의 특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일종의 이론처럼 정합성을 지닌 개념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지 보고자했다.

연구 문제 3: 특질 유형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

이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지능(intelligence)과 같은 특질이 변화하지 않는 사

람의 본질이라고 믿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Dweck, Chiu, & Hong, 1995; 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특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갖추도록 요구되는 ‘지능(intelligence), 말 많은(talkative), 독립적(independent), 창의적(creative), 상상력(imagination), 야심 있는(ambitious)’과 같은 성격 특질일수록 본질적인 특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Haslam et al., 2004). 나아가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중심적인 성격 특질(centrality), 그리고 그 사람을 남에게 소개할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특질(communicability)은 더 본질적 관점을 가진 특질들로 나타났다(Haslam et al., 2004). 만일 한국 성인들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믿는 특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거나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중심적인 특질일 가능성이 높다.

연구 문제 4: 특질의 긍정성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가?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은 긍정이나 부정적 특질에 관계없이 특질에 대한 본질적 관점, 즉, 실체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Lockhart et al., 2002).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모든 문화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세일 때 특정 특질을 가진 아이가 21세가 되고 80세가 되어서도 그 특질이 안정적인 것인지를 물어볼 경우 긍정적인 특질에 대해서는 일본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보고 간에 차이가 없지만, 부정적인 특질에 대해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더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Lockhart et al., 2008).

이것은 단순히 특질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은 유지되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낙관주의(optimism)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들의 아동 특질에 대한 믿음이 긍정성 부정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의 아동 특질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 설문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12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은 연구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거나(61명), 우편을 통해 받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동봉된 반송 봉투에 넣어 보내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15명). 참가자 일부는 인천 지역 한 교회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39명). 이 중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2명), 최소 한 문항 이상의 응답이 빠진 경우(7명), 모든 문항에 같은 번호로 표기를 한 경우(1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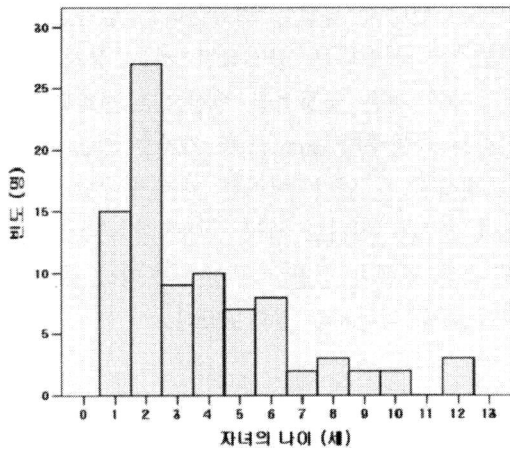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1참가자 자녀의 연령 분포

서 총 102명의 어머니들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총102명 어머니들의 자녀들(남아 39명, 여아 50명, 자녀 성별 무응답 13명)의 연령 범위는 6개월에서 12.2세(평균 3.8세, 자녀 연령 무응답 14명 제외)였다. 그림 1은 자녀의 연령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도구

설문에 사용된 질문들은 총 10개의 성격 특질에 대하여 구성되었으며, 10개의 성격 특질은 긍정적 특질 5개와 부정적 특질 5개로 이루어졌다. 이 특질들은 Haslam과 그의 동료들(2004)이 사용한 40개의 성격 특질 중 서양인들이 주로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개를 선택하여 한국어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이 10개의 특질은 각 성격의 다섯 요인 이론(big five) 특질의 다섯 차원의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긍정 특질과 부정 특질의 5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된 특질 쌍들은 ‘똑똑한/ 공부 못 하는’, ‘쉽게 만족하는/ 걱정

많은’, ‘온순한/ 고집 센’, ‘씩씩한/ 수줍음을 타는’, ‘정리정돈 잘 하는/ 덩벙거리는’이었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될 특질들을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특질이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6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1점: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6점: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t-검정 결과, ‘온순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질들이 중간 점수 3.5점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정의된 특질들은 중간 값(3.5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부정적이라고 정의된 특질들은 중간 값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t(24) > 3.0, p < .0025$). 또한, 모든 긍정 특질과 부정 특질의 쌍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똑똑한-공부 못 하는’: $t(24) = 6.740, p < .001$; ‘쉽게 만족하는-걱정 많은’: $t(24) = 6.800, p < .001$; ‘온순한-고집 센’: $t(24) = 2.864, p < .01$; ‘씩씩한-수줍음 타는’: $t(24) = 8.354, p < .001$; ‘정리정돈 잘 하는-덩벙거리는’: $t(24) = 7.794, p < .001$). 비록 ‘온순한’이라는 특질이 6점 척도에서 평균 3.68점을 얻어 중간 점수인 3.5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t(24) < 3.0$), 부정적 특질 쌍인 ‘고집 센’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t(24) = 2.864, p < .01$)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질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온순한’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차원들은 모두 5개로 이는 Gelman과 동료들(2007)이 사용한 차원에서 선정되었다: 뇌 차이(뇌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출생(타고 태어나는가), 지속(지속적인가), 변화(변화하는가), 환경(환경의 영향을 받는가). 예

(가)-(마)는 ‘똑똑한’이란 특질에 대해 각 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보여주고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기하였고, 예 (가)-(마)가 보여주듯이 차원에 따라 1점과 6점의 내용이 다소 달라졌다. 응답 분석 시, 변화와 환경 차원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reverse coding)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에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6점에 근접할수록) 특질이 선천적인 것이거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뇌 차이 - 똑똑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뇌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6 =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출생 - 똑똑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 절대 그렇지 않다, 6 = 확실히 그렇다)

(다) 지속 - 5세에 똑똑한 아이들은 4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 절대 그렇지 않다, 6 = 확실히 그렇다)

(라) 변화 - 똑똑한 지 그렇지 않은 지는 아이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6 =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마) 환경 - 아이들이 똑똑한 지 그렇지 않은 지에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6 =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절차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50개의 문항(10

개의 성격 특질 x 5개의 믿음 차원)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내 문항들은 차원에 따라 묶여 배열되었고, 각 차원 내에서의 각 특질에 대한 문항은 무선 배열되었다. 설문지 내 차원의 순서도 무선화 되었다. 또한 문항들을 역순으로 배열한 설문지를 추가하여 순서 효과를 방지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어머니들은 아동의 특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표 1은 각 특질의 각 차원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평균값은 2.8점으로 연구에 사용된 6점 척도의 중간 점수인 3.5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게 나타났다, $t(101) = -11.118, p < .001$.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국 어머니들이 아동의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질-차원’쌍 중 ‘뇌 차이-공부 못 하는($M = 3.55$)’과 ‘뇌 차이-똑똑한($M = 3.72$)’은 중간 점수(3.5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뇌 차이-공부 못 하는’: $t(101) < 1$; ‘뇌 차이-똑똑한’: $t(101) = 1.501, p > .05$). 반대로 나머지 점수들은 7개의 값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5점보다 유의미하게 작았다, $t(101) > 2.0, p < .04$.

한국 어머니들의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어머니들이 아동의 특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개념적 정합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차원 점수 간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

표 1. 연구 1, 각 특질과 믿음 차원 점수의 평균 값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평균	표준편차
똑똑한	2.92**	3.72	2.87**	2.98**	2.33**	2.96	0.50
공부 못 하는	2.04**	3.55	2.53**	2.41**	1.95**	2.50	0.64
쉽게 만족하는	3.24	3.28	2.71**	2.53**	1.93**	2.74	0.56
걱정 많은	3.22*	3.44	2.43**	2.84**	1.80**	2.75	0.65
씩씩한	3.19*	2.88**	3.12**	2.80**	2.11**	2.82	0.43
수줍음을 타는	2.60**	2.86**	3.18*	2.93**	2.58**	2.83	0.25
온순한	2.86**	3.17*	3.31	3.09**	2.49**	2.98	0.32
고집 센	3.26	3.02**	3.29	3.04**	2.66**	3.05	0.25
정리정돈 잘 하는	3.33	2.88**	2.24*	2.21**	2.01**	2.53	0.55
덤벙거리는	2.95**	3.07**	2.78**	2.92**	2.61**	2.87	0.18
평균	2.96	3.19	2.85	2.78	2.25	2.80	
표준편차	0.40	0.30	0.37	0.29	0.32		

주. 진하게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보다 높은 점수를 가리킴.

이탤릭으로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표 2. 연구 1, 각 믿음 차원간의 상관관계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지속	1	.18	.36**	.20**	.00
뇌 차이		1	.52**	.36**	.17
출생			1	.39**	.00
변화				1	.19
환경					1

주.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시되어있다. 10개의 상관 점수 중 모두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 중 5개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었다. 차원 ‘환경’은 다른 차원 어느 것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이 정합성이 다소 결여된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차원 ‘환경’을 다른 차원들과 독립적으로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뇌에 차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특질이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이고 덜 변화하는 특질이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원들 중 ‘환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머니들의 믿음이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질 유형 및 차원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정도가 특질 및 차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10(특질) × 5(차원) 반복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질의 주 효과가 나타났는데($F(9, 909) = 13.909, MSE = 1.230, p < .001, \eta^2 = .121$), 이것은 어머니들이 특질에 따라 응답을 달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질은 ‘똑똑한($M = 2.96$)’, ‘고집 센($M = 3.05$)’, ‘온순한($M = 2.9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특질은 ‘공부 못 하는($M = 2.50$)’이었고 그 다음이 ‘정리 정돈 잘하는($M = 2.53$)’이었다.

또한 차원의 주효과도 나타났다, $F(4, 404) = 16.571, MSE = 7.452, p < .001, \eta^2 = .141$. 이것은 특질 차원에 따라 응답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차원은 ‘뇌 차이’로서 평균 3.19점이었고, 그 다음이 ‘지속($M = 2.96$)’, ‘출생($M = 2.85$)’, ‘변화($M = 2.78$)’, 마지막으로 ‘환경’이 2.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Bonferroni 검사에 의하면, 점수가 가장 높았던 차원 ‘뇌 차이’는 ‘지속’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p > .05$), 나머지 차원 ‘출생($p < .05$)’, ‘변화($p < .05$)’, 그리고 ‘환경($p < .001$)’과는 평균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그리고 점수를 가장 낮게 받았던 ‘환경’은 다른 차원 각각의 평균 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ps < .001$). 또한, 특질과 믿음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F(36, 3636) = 12.499, MSE = .840, p < .001, \eta^2 = .110$. 이것은 어머니들이 특질과 믿음 차원 각각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특질의 공부정성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가?

어머니들의 믿음 양상이 특질의 공부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질 쌍(5) × 차원(10) × 공부정성(2)의 반복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부정성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F(1, 101) < 1$, 특질과 공부정성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4, 404) = 23.026, MSE = .929, p < .001, \eta^2 = .186$.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똑똑한-공부 못 하는’ 특질 쌍($t(101) = 8.81, p < .001$)과, ‘정리정돈 잘 하는-덤벙거리는’ 특질 쌍($t(101) = -5.26,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긍정적인 특질 ‘똑똑한’이 부정적인 특질 ‘공부를 못하는’이라는 특질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반면(똑똑한 $M = 2.96$; 공부를 못 하는 $M = 2.50$), 긍정 특질 ‘정리정돈 잘 하는’ 것은 부정 특질 ‘덤벙거리는’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정리정돈 잘하는 $M = 2.53$; 덩벙거리는 $M = 2.87$). 다시 말해,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똑똑한 특질은 공부 못 하는 것보다 더 변화하지 않고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특질이라고 믿고 있는 반면, 아이들의 정리정돈 잘하는 특질은 덩벙거리는 특질보다 더 변화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특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부분의 쌍은 부정적인 특질이 긍정적인 특질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똑똑한-공부 못 하는’쌍에서는 긍정적인 특질인 ‘똑똑한’이 부정적인 특질인 ‘공부 못 하는’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차원과 공부정성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4, 404) = 8.914$, $MSE = .850$, $p < .001$, $\eta^2 = .081$. t -검정 결과, 차원 ‘지속($u(101) = 4.034$, $p < .001$)’과 ‘환경($u(101) = -2.204$, $p < .05$)’에서 긍정 특질과 부정 특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특질은 부정적인 특질보다 더 지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특질은 부정적인 특질보다 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원과 특질, 그리고 공부정성 세 요인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F(16, 1616) = 6.917$, $MSE = .686$, $p < .001$, $\eta^2 = .064$. 이것은 어머니들이 차원에 따라 특질의 본질을 다르게 생각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질의 긍정 부정적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게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요약

연구 1의 결과는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특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특질 차원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증진적 관점은 정합성을 지닌 특질 개념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차원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들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이전 연구에서 대부분의 차원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던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특질 중 ‘고집 센’이나 ‘똑똑한’과 같은 특질들은 다른 특질들에 비해 더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부 못 하는’은 가장 가변적인 특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똑똑한’과 ‘공부 못 하는’이라는 긍정, 부정 특질 각각을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진 아이들의 특질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특질의 공부정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질 유형과 믿음 차원에 따라 긍정 특질과 부정 특질에 대한 반응 유형은 달랐다. 똑똑한 특질은 공부 못한다는 특질보다, 덩벙거리는 특질은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특질보다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아이들의 특질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긍정적 특질이 부정적인 특질보다 더 지속적일 것이지만, 긍정적인 특질이 부정적인 특질보다 더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는 대학생 연구를 통해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자녀를 가진 어머니라는 집단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성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결과인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대학생 총 111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지역의 Y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설문지 척도의 설명 잘못으로 8개와, 한 문항 이상 응답이 빠져있는 설문지 1개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02명(남 51명, 여 51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 도구 및 연구 절차

설문 도구 및 연구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했다.

결과 및 논의

한국 대학생들은 아동의 특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표 3은 각 특질의 각 차원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평균값은 2.92점이고, 이것은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간 점수(3.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게 나타났다, $t(101) = -10.443, p < .001$.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아이들의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점수(3.5점)를 넘는 것은 ‘뇌 차이-똑똑한($M = 3.61$)’, ‘변화-고집 센($M = 3.52$)’, ‘변화-똑똑한($M = 3.64$)’, ‘지속-고집 센($M = 3.58$)’ 총 세 가지이었다. 그러나 이

표 3. 연구 2, 각 특질과 믿음 차원 점수의 평균 값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평균	표준편차
똑똑한	2.89**	3.61	3.32	3.64	3.02**	3.30	0.34
공부 못 하는	2.18**	3.29	2.70**	2.52**	2.24**	2.59	0.45
쉽게 만족하는	3.00**	3.14**	2.58**	3.12**	2.38**	2.84	0.34
걱정 많은	3.18*	3.11**	2.53**	3.42	2.49**	2.95	0.41
씩씩한	2.83**	2.90**	2.56**	2.94**	2.36**	2.72	0.25
수줍음을 타는	2.76**	2.98**	2.79**	3.12**	2.82**	2.89	0.15
온순한	2.83**	3.18*	2.98**	3.30	2.42**	2.94	0.34
고집 센	3.58	2.94**	2.91**	3.52	2.87**	3.16	0.35
정리정돈 잘 하는	3.52	3.06**	2.31**	2.52**	2.57**	2.80	0.49
덤벼거리는	3.14**	3.13**	2.66**	3.07**	3.18**	3.04	0.21
평균	2.99	3.13	2.73	3.12	2.64	2.92	
표준편차	0.40	0.20	0.28	0.38	0.32		

주. 진하게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보다 높은 점수를 가리킴.
 이탤릭으로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중에서 t -검정 결과 중간 점수(3.5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없었다 ('뇌 차이-똑똑한': $t(101) < 1$; '변화-고집센': $t(101) < 1$; '변화-똑똑한': $t(101) = 1.001, p > .3$; '지속-고집센': $t(101) < 1$). 이것 또한 연구 1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값들은 중간 점수(3.5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표 3 참조).

한국 대학생들의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아동의 특질에 대한 믿음 차원간의 통일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4에서 보이듯이, 10개의 상관 점수 중 10개의 점수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 중 8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반응이 여러 차원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차원들 간에 정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들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질 유형 및 차원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정도가 특질 및 차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10(특질) × 5(차원) 반복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특질의 주효과가 나타났고($F(9, 909) = 15.253, MSE = 1.449, p < .001, \eta^2 = .131$),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이 특질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설문에서 사용된 특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똑똑한($M = 3.30$)'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질은 '고집센($M = 3.17$)'이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공부 못하는($M = 2.58$)' 특질이었다. Bonferroni 검사 결과, '똑똑한' 특질은 '고집센', '덤벙거리는' 특질을 제외한 다른 특질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또한 '공부 못하는'은 다른 특질 '수줍음을 타는', '씩씩한', 그리고 '정리정돈 잘하는'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특질보다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5$).

차원의 주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차원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함을 보였다, $F(4, 404) = 11.036, MSE = 4.731, p < .001, \eta^2 = .099$. 대학생들은 차원 '뇌 차이($M = 3.13$)'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차원 '변화($M = 3.12$)', '지속($M =$

표 4. 연구 2, 각 믿음 차원간의 상관관계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환경
지속	1	.35**	.49**	.25*	.35**
뇌 차이		1	.43**	.19	.03
출생			1	.37**	.38**
변화				1	.30**
환경					1

주. *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2.99), '출생($M = 2.73$)'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차원은 '환경($M = 2.64$)'이었다. Bonferroni 검사 결과, 차원 '뇌 차이'의 평균은 '변화'와 '지속'의 평균들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출생과 환경의 평균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5$). 또한, 차원 '환경'의 평균은 '출생'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차원들의 평균들보다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p < .005$.

특질과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36, 3636) = 10.546$, $MSE = .755$, $p < .001$, $\eta^2 = .095$. 이것은 대학생들이 특질과 믿음 차원 각각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특질의 공부정성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가?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믿음이 아동 특질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질쌍(5) x 차원(10) x 공부정성(2)의 반복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부정성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101) < 1$. 하지만, 특질과 공부정성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4, 404) = 42.502$, $MSE = .980$, $p < .001$, $\eta^2 = .296$. 이 상호작용은 '쉽게 만족하는-걱정 많은' 특질 쌍에서 공부정성 특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t(101) = -1.844$, $p > .05$), 다른 모든 특질 쌍에서는 긍정 부정 특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데서 기인한다(똑똑한-공부 못 하는: $t(101) = 10.253$, $p < .001$; 온순한-고집 센: $t(101) = -3.857$, $p < .001$; 씩씩한-수줍음을 타는: $t(101) = -2.702$, $p < .01$; 정리정돈 잘하는-덤벙거리는: $t(101) = -3.899$, $p < .001$). 여기서 통계적으로 긍정-부정 특질 사이에 차이가 나

는 경우, 주로 긍정적인 특질보다 부정적인 특질이 더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은 데 비해(온순한 $M = 2.94$, 고집 센 $M = 3.17$; 씩씩한 $M = 2.72$, 수줍음을 타는 $M = 2.90$; 정리정돈 잘하는 $M = 2.80$, 덤벙거리는 $M = 3.03$), '똑똑한-공부 못 하는' 특질 쌍에서는 긍정적인 특질인 '똑똑한'이 부정적인 특질인 '공부 못 하는'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똑똑한 $M = 3.30$, 공부 못 하는 $M = 2.58$). 이것은 대학생들이 '똑똑한-공부 못 하는' 특질 쌍에 대해서 다른 특질 쌍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차원과 공부정성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도 발견되었다, $F(4, 404) = 4.050$, $MSE = .628$, $p < .005$, $\eta^2 = .039$. 상호작용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각 특성 간 비교를 한 결과, 차원 '뇌 차이'와 '환경'에서 유의미한 긍정 부정 특질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뇌 차이: 긍정 $M = 3.18$, 부정 $M = 3.09$, $t(101) = 2.10$, $p < .05$; 환경: 긍정 $M = 2.55$, 부정 $M = 2.72$, $t(101) = -3.40$, $p < .005$). 즉,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특질이 부정적인 특질보다 좀 더 뇌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특질이 부정적인 특질보다 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질, 차원, 공부정성 간의 삼원 상호작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6, 1616) = 8.269$, $MSE = .638$, $p < .001$, $\eta^2 = .076$. 이것은 대학생들이 차원에 따라 특질의 본질을 다르게 생각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질의 긍정 부정적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게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요약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한국 대학생들도 어머니들과 같이 아동 특질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믿음은 믿음 차원 별로 독립된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똑똑한, 고집 센’은 다른 특질보다 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부 못 하는’은 다른 특질보다 더 변화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특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원에 따라서도 대학생들은 다르게 응답을 하였는데, 특히 차원 ‘뇌 차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차원 ‘환경’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특질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는 참가자들의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유의미한 상호작용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특질 ‘쉽게 만족하는-걱정 많은’ 쌍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특질 쌍에서 긍정 부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차원 ‘뇌 차이’와 ‘환경’에서도 긍정 부정 특질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이는 연구 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종합논의

연구 1과 2 모두에서 한국 성인들이 아동의 특질이 안정적이기 보다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천적인 생물학적 차이도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¹⁾ 이는 한국 성인들이 아동의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전 연구(Dweck et al., 1993; Norenzayan et al., 2002)의 제안과 일치한다. 또한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Choi et al., 1999; Dweck & Leggett, 1988; Markus & Kitayama, 1991)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한국 성인들의 아동 특질에 대한 믿음은 대체적으로 개념적 정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양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Haslam et al., 2000). 다만, 연구 1의 어머니 집단에서 환경 차원과 다른 차원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개념적 정합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다르다. 즉, 한국 어머니들은 타고나고, 지속적인 경향성을 가진 특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대학생 집단 모두 ‘똑똑한’, ‘고집 센’을 다른 특질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공부 못 하는’을 다른 특질보다 좀 더 가변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이들 특질에 대하여 한국 성인들이 비슷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 특질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똑똑한’ 특질이 ‘공부 못 하는’ 특질보다 더 안정적이고 타고난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어머니와 대학생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차원 ‘환경’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한국 성인들이 아이들의 어떤 특질도 ‘환경’의 영향력

1) 연구 1과 2의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평균: 2.80)의 점수가 대학생들(평균: 2.92)에 비해 더 낮은 경향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집단

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02) = 2.020, p > .10$.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환경적 요소에 민감하다는 이전 연구(Norenzayan et al., 2002)와 일치하며, 연구 1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환경 차원과 다른 차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과 관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대학생 집단 모두 긍정 부정 특질에 대한 응답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긍정적인 특질에 있어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과 차이가 없었지만, 부정적인 특질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던 이전 연구(Lockhart et al., 2008)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특정 특질 쌍에서는 긍정 특질과 부정 특질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특질인 ‘똑똑한’은 부정적인 특질인 ‘공부 못 하는’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긍정적 특질 ‘정리정돈 잘하는’은 부정적 특질 ‘덤벙거리는’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특정 차원 점수에서 긍정 특질과 부정 특질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특질이 부정적인 특질보다 더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증진적 관점의 근원: 문화 차

서양인들이 특질을 전반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실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Lockhart et al., 2002; Lockhart et al., 2008)과는 달리, 한국 성인들이 대체적으로 아동의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 간 다소 차이가 있다고 여겨져 왔는데, 동양인들은 자신에 비해 환경이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만 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해 훨씬 더 세상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더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유연한 존재이고, 역할의 책임이나 관계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Su et al., 1999; Triandis, 1989).

또한, 이러한 세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지각된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양문화에서는 ‘영향(influence-primary control)’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 동양 문화에서는 ‘순응(adjustment-secondary control)’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orling et al., 2002; 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 이것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려는 동기보다는 환경에 스스로를 맞추려는 동기를 더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서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환경을 자신에 맞도록 변화시켰던 경험과 자기 스스로를 환경에 맞추어 적응했던 경험을 회상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학생들이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변화시켰던 경험을 더 많이 보고했던 반면, 일본 학생들은 스스로를 환경에 맞추어 적응시켰던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이 결과는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문화(Heine, 2001)와는 반대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개인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일본 문화의 특성(Heine et al., 2001)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세상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회와 개인의 요구에 맞춰 성격 특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더 적응적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성인들의 특질이 가변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성의 가능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진적 관점과 낙관적 관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이 긍정적 특질과 부정적 특질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변적이라고 믿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일본 성인들이 특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특질은 좀 더 안정적이며, 부정적 특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낙관적 관점(optimistic view)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 (Lockhart et al., 2008)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에서의 “변화”의 의미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화”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특질이 가변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예: 똑똑한 지 그렇지 않은 지는 아이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부정 특질 둘 다에서 긍정적,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었다. 반면 Lockhart 등(2008)에서는 긍정적인 특질이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는데(예: 노력을 계속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똑똑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특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예: 노력을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 덜 수줍게 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여, 응답자들은 모든 특질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Lockhart와 그의 동료들(2008)이 사용한 질문은 응답자들이 긍정적 특질이 (때로는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성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특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좀 더 고려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Lockhart와 그의 동료들(2008)이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형했을 때, 한국 성인들에서도 낙관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질 유형에 따른 믿음 차이

특질 유형에 따라 한국 성인들이 특질 본질에 대한 믿음이 달라짐이 나타났다. ‘똑똑한’과 ‘고집 센’은 다른 특질보다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특질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공부 못 하는’이라는 특질은 다른 특질보다 훨씬 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이러한 ‘똑똑한’과 ‘공부 못 하는’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갖추도록 요구되는 특질일수록 더 본질적 관점을 가진다는 주장(Haslam et al., 2004)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특질 ‘고집 센’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이라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이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수반되어야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질 ‘고집 센’은 다른 특질보다 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을 알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특질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라고 알려진 한국 문화 (Markus & Kitayama, 1991)에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추구할 때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특질이 ‘고집 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질은 타인 지각에서 좀 더 중요하게 표상되는 특질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어떤 사람을 제 3자에게 소개할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특질(communicability)이 다른 특질에 비해 더 본질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Haslam et al., 2004)와도 일치한다.

어머니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 반응 차이

연구 1과 2의 결과를 10(특질) x 5(차원) x 2(집단) 분산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각주 1 참조), 몇 가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특질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9, 1818) = 3.212, MSE = 1.339, p < .005, \eta^2 = .016$. 사후 검증 결과, 특질 ‘똑똑한($\mu(202) = -2.721, p < .01$)’과 ‘정리 정돈을 잘하는($\mu(202) = -2.544, p < .05$)’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들은 대학생들에 비해서 아동들의 똑똑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특질이 안정적이고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차원과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4, 808) = 4.455, MSE = 6.091, p < .005, \eta^2 = .022$. 사후 검증 결과 차원 ‘변화($\mu(202) = -2.798, p < .01$)’와 ‘환경($\mu(202) = -3.869, p < .001$)’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들은 대학생들에 비해서 아동들의 특질이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특질과 차원, 집단 간 삼원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F(36, 7272) =$

2.977, $MSE = .798, p < .001, \eta^2 = .015$. 이것은 집단에 따라 특질과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여 응답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은 대학생들보다 아동들의 특질이 변화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Lockhart et al., 2008). 한국 어머니들이 아동들의 특질이 가변적이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특질을 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맺음말

이 연구는 아동의 특질에 대한 어머니와 대학생의 믿음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와 대학생 두 집단 모두 아동의 특질이 가변적이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특질의 본질에 대한 한국 성인들의 믿음 유형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많은 연구들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개의 특질 이외의 다양한 특질에 대한 믿음 양상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아동기에서 성인기 사이에 어떻게 발달하는지 (Gelman et al., 2007), 이러한 특질에 대한 믿음 발달에 문화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성인들의 양육태도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에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erndt, T. J., Cheung, P. C., Lau, S., Hau, K.-T., & Lew, W. J. F. (1993). Perceptions of parenting in mainland China, Taiwan, and Hong Kong: Sex differences and societ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56-164.
- Cain, K. M., & Dweck, C. S. (1995). The relation between motivational patterns and achievement cognitions through the elementary school years. *Merrill-Palmer Quarterly, 41*, 25-52.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Demoulin, S., Leyens, J. -P., & Yzerbyt, V. (2006). Lay theories of essentialism.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9*, 25-42.
- Dweck, C. S., Chiu, C., & Hong,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 267-285.
- Dweck, C. S., Hong, Y., & Chiu, C. (1993).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Erdley, C., Cain, K., Loomis, C., Dumas-Hines, F., & Dweck, C. S. (1997).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social goal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nd responses to social failur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63-272.
- Gelman, S. A. (2003). *The Essential Child. Origins of Essentialism in Everyday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lman, S. A., Heyman, G. D., & Legare, C. H. (2007).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coherence of essentialist beliefs abou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8*, 757-774.
- Gottfried, G. M., Gelman, S. A., & Schultz, J. (1999).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brain: From early essentialism to biological theory. *Cognitive Development, 14*(1), 147-174.
- Haslam, N., Bastian, B., & Bissett, M. (2004). Essentialist beliefs about personality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1661-1673.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113-127.
- Heine, S. J. (2001). Self as cultural product: An examination of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69*, 881-906.
- Heine, S. J. (2005). Where is the evidence for pancultural self-enhancement?: A reply to Sedikides, Gaertner, and Toguchi (200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531 - 538.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Tkata, T.,

- Ide, E., Leung, C., et al.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nderson, V., & Dweck, C. S. (1990).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308-329).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yman, G. D., & Dweck, C. S. (1998). Children's thinking about traits: Implications for judgments of the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64, 391-403.
- Heyman, G. D. & Gelman, S. A., (1999). The use of trait labels in making psychological inferences. *Child Development* 70, 604 - 619.
- Holloway, S. D. (1988). Concepts of ability and effor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8, 327-345.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747-756.
- Keil, F.C. (1989). *Concepts, kinds, and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MA.: MIT Press.
- Lockhart, K. L., Chang, B., & Story, T. (2002).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he stability of traits: Protective optimism. *Child Development*, 73, 1408-1430.
- Lockhart K. L., Nakashima, N., Inagaki, K., and Keil, F. C. (2008). From ugly ducking to swan? Japanese and American beliefs about the stability and origins of traits. *Cognitive Development*, 23, 155-17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323.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 E. (2002).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inference: evidence from behavioral predictions and lay theories of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09-120.
- Rothbart, M., & Taylor, M. (1992). Category labels and social reality: Do we view social categories as natural kinds? In G. Semin & K. Fiedler (Eds.), *Language and social cognition* (pp. 11-36). London: Sage.
- Ji, L.-J., Peng, K., & Nisbett, R. E., (2000). Culture, control, and perception of relationships in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943-955.
- Su, S. K., Chiu, C.-Y., Hong, Y.-Y., Leung, K., Peng, K., & Morris, M. W. (1999). Self organiz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American and Chinese constructions. In T. R. Tyler, R. Kramer, & O. John (Eds.),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pp. 193-222).

Mahwah, NJ: Erlbaum.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1 차원고접수: 2008. 7. 31.

수정원고접수: 2008. 8. 31.

최종게재결정: 2008. 9. 16.

Korean adults' beliefs about the essence of children's traits

You-jung Choi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four questions. First, what kind of view do Korean adults have about the children's traits? Second, do adults' beliefs of children's traits have conceptual coherence? Third, can adults' beliefs about children's trait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traits? Last, do adults' beliefs about positive and negative traits of children differ from each other? One hundred-two Korean mothers participated in Study 1, and one hundred-two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2.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Korean mothers and college students in their views about the essence of children's traits.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ults have incremental views about children's traits: they believe the children's traits are changeable and affected by the environment. This research is an initial attempt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Korean adults' beliefs about children's traits. The result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beliefs about traits, and the origins of Korean parenting styles.

Key words : traits, essence, social cognition, person perception